

제9회 동시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

리얼미터 실시
직무수행 평가

교육감
전국



2025.12.29~31, 2026.1.29~31 전국 1만3600명 대상 조사

교육감은
김대중

통합도 착착!
교육도 착착!

7월 1일 탄생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20만 메가시티 앞에
AI 데이터센터, 국가 AI컴퓨팅센터, 인공태양 등
AI-에너지 밸리라는 거대한 기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시설만 들어온다고 지역의 미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산업을 이해하고, 운영하고, 연구하고, 창업하고,
다시 지역에 정착할 사람을 길러내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배움과 지역의 일자리를 잇는 대전환

**대한민국
교육특별시**

전국 1위 직무평가로 검증된
김대중이 합니다



리얼미터 실시
직무수행 평가

교육감 전국1위

김대중이 합니다



전북과 세종교육감의 결위로
전국 15명의 시도교육감 중 12위까지 발표
13위 이하 하위는 발표 제외
이정선 교육감은 2월 발표에서 제외



1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남교육은 아이들에게 먼저 닿았습니다.

지역 소멸에 맞선 김대중의 학생교육수당

2000년, 목포시의원 김대중은 무상급식을 주장했습니다.

급식비가 없어 점심을 굶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무상급식의 물꼬가 되었고,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에서는 무상급식이 실현되었습니다.

다시 10여 년 뒤 김대중은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실현했습니다.

교육은 권리가 되었고, 학교는 모든 아이의 가능성을 키우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이 한 명의 오늘을 지키고, 지역의 내일을 살리는 교육.

김대중의 교육은 늘 먼저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아동수당 확대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수당 연간 120만원

초등학교 3~6학년 전남학생교육수당 연간 120만원

중학교 1~2학년 전남학생교육수당 연간 60만원

수도권 중심 교육에 맞선 김대중의 글로벌 미래교육

지역을 이해하고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미래교육은

AI·국제교류·인문교육을 통해 미래 역량을 갖추는 전남교육 대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2030교실은 단순한 스마트교실이 아니라

“무엇을 배우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수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미래 교실입니다.

성과가 새로운 약속이 되고 약속은 새로운 희망이 되는

전남에서 광주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교육수당을 전면 확대합니다.

교육이 권리가 되고 의무가 되는 대한민국 교육특별시

전남에서 검증된 학생교육수당의 혜택을 광주까지 넓히고 더욱 촘촘하게 다양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부모의 형편이 아이의 배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학생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 학생교육수당 전면 확대
- 교복·생활복·체육복 구입비, 현장체험학습 및 방과후 프로그램 참가비 무상화
- 원거리 통학 최소화를 위한 학생 중심 학구 조정
- 아침간편식 확대와 학생 심리치료를 위한 권역별 학생마음건강센터 운영
- 공백 없는 유아·초등 맞춤형 책임 돌봄 체계 구축

사업의 목표 학생 교육기본권 보장 우선순위 최우선과제 이행절차 실태조사 → 조례제·개정 → 단계적 확대
이행기간 교육감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지방교육재정,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전남에서 먼저 만난 미래교육 2030교실을 전면 확대합니다.

시기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교육특별시

2030교실에서 전남의 아이들은 가장 먼저 미래교육을 만났고, 전남은 IB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이제 미래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학생들의 성장 기록을 독자적인 인공지능 체계로 자산화하여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디지털 교육의 표준으로 만들겠습니다.

- 2030교실 전면 도입과 학교별 강점을 살린 특화형 교육과정 확대
- IB교육과정 확대 및 서논술형 평가 강화
-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AI·빅데이터 기반 교육케어 시스템 구축
- 교육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소버린 AI 교육데이터센터 구축
- 끊임 없는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의 목표 미래형 학습환경 구현 우선순위 최우선과제 이행절차 타당성연구 → 기본계획수립
→ 운영확대 이행기간 교육감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대한민국 교육특별시

배움이 일자리가 되는 500만 메가시티 K-교육밸리를 만듭니다.

지역의 산업과 교육을 잇는 대한민국 교육특별시

동북아시아의 AI-에너지 밸리로 새롭게 주목받는 전남광주를 500만 메가시티로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풍부한 자산이 곧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고 일자리가 되도록, 대학·기업과 손잡고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의 탄탄한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 AI·에너지 특화 영재학교 설립 추진 및 KENTECH 부설 에너지 영재교육원 운영
- GIST 연계교육 및 산·학·관 공동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K-교육밸리 조성 (푸드, 컬러, 바이오·농생명, 뷰티, 우주항공)
- 산업 수요에 맞춘 특성화고 학과 전면 개편 및 직업교육 강화
- 청년 창업의 꿈을 지원하는 원스톱 취업·창업 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목표 지역인재양성 우선순위 1순위 이행절차 타당성용역 → 기본계획수립 → 운영확대
이행기간 교육감 임기 내 자원조달방안 지방교육재정,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대응투자, 공공-민간 협력

기초·기본학력부터 대학입시까지 이제 공교육이 책임집니다.

학력 무한책임제를 시행하는 대한민국 교육특별시

태어난 순간부터 대학입시까지 우리 아이들의 의지와 잠재력이 성공의 유일한 기준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전남광주의 모든 학생이 어디서 배우든 탄탄한 기초·기본 실력을 갖추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교육과정·수업·평가·학력·대학입시를 책임지는 (가칭)전남광주교육과정개발평가원 설립
- 전남광주 문제은행시스템 구축과 전국학력평가 출제 기관 준비
- 진학 전문교원 양성 및 네트워크 운영
- 1:1 밀착 지도를 위한 기초·기본학력 전담교사 배치 확대
- 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한 AI 기반 학업 지원 시스템 도입

사업의 목표 기초·기본학력 책임 실현 우선순위 최우선과제 이행절차 현황진단 → 기본계획수립 → 시스템 구축
이행기간 교육감 임기 내 자원조달방안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김대중이 합니다!

전남에서 시작한 글로벌교육

세계시민교육의 중심이 됩니다.

세계시민주의 중심에 서는 대한민국 교육특별시

지역을 이해하고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교육은 공생의 가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입니다. 공생을 기반으로 전남광주가 세계 시민교육의 중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호남의 민주주의를 세계가 배우며, 우리 아이들이 헌법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가치 확산을 위한 자치기반의 민주주의교육전당 건립
-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남북 청소년 교류 운영
- 국제학생 교류 및 글로벌 공동프로젝트
- 이주배경학생 진로·취업 연계 지원 강화
- 5·18 정신 헌법 수록 등 청소년이 만드는 참여형 헌법 개정 프로그램 상설화

사업의 목표 민주·세계시민 양성 **우선순위** 우선과제 **이행절차** 기본계획수립 → 조례제정 → 운영·확대
이행기간 교육감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지방교육재정,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배움을 넘어 실천으로

학교는 인권을 실천하는 공간입니다.

선생님의 교권과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 교육특별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보호망을 촘촘히 짜고, 학교 안팎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지켜내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를 구축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등하교알림서비스 전면 도입과 학교 안전출입관리 시스템 운영
- 선생님을 위한 교원 안심 변호사 및 책임면책 법률 지원
- 현장학습 전후 밀착형 안심동행 안전요원 및 사고대응 원스톱팀 운영
- 분청 업무를 간소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스마트 교육청 운영
- 학교의 비교육활동 업무를 해소하는 행정 업무 아웃소싱 도입

사업의 목표 교권 보호·학생안전망 구축 **우선순위** 최우선과제 **이행절차** 실태조사 → 조례·규정 정비 → 시스템 구축
이행기간 교육감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통합도착착!
교육도착착!

예산에서 교육과정까지 권역별 교육자치구를 실현합니다.

교육자치를 완성하는 대한민국 교육특별시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뭉쳐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책임집니다.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현장 중심 교육 자치'를 실현하여, 특별시민의 참여로
완성하는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표준을 만들겠습니다.

- 권역별 교육자치구 권한 대폭 이양 (공모교육장 시범운영, 지역예산제, 지역정원제, 지역교육과정 운영권)
- 동부권역 교육청사 신설
- 광주권역 교육지원청 추가 신설
- 특별시, 의회, 교육청,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재양성교육위원회 추진
- 교육 지원 활동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역별 사회연대경제 실현

사업의 목표 교육자치권 강화 우선순위 2순위 이행절차 타당성용역 → 기본계획수립 → 조례 제·개정
이행기간 교육감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지방교육재정,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국고보조금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평생문화교육도시를 조성합니다.

곳곳이 평생 교육 플랫폼이 되는 대한민국 교육특별시

학교를 넘어 지역 전체가 교육을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합니다. 모든 아이들의 첫걸음부터
은퇴 이후 배움까지 공교육이 든든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누구나 배움을 일상으로 누리는
대한민국 교육특별시, 이제 전남광주에서 시작합니다.

- 권역별 랜드마크 유아놀이체험원 조성
- 전남광주 시에듀테크 특수교육원 설립
- 학교 밖 청소년의 공교육 재진입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지원
- 평생 독서 이력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개인별 생애 독서 관리 시스템 운영
- 통합서비스 제공 및 자원 공유를 위한 통합 도서관 운영 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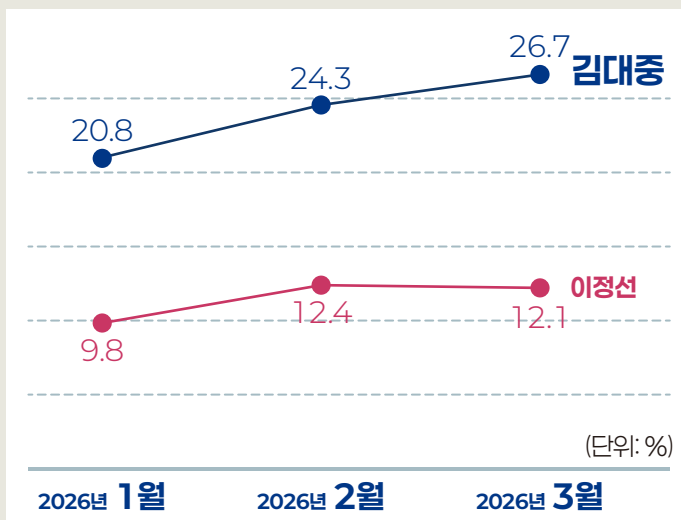
사업의 목표 평생학습권 보장 우선순위 3순위 이행절차 기본계획수립 → 조례제정 → 플랫폼구축
이행기간 교육감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지방교육재정,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1위

김대중이 합니다



2026년 1월

의뢰기관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조사기관 메타보이스(주)
조사일자 2026. 1. 16.~17.
조사방법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ARS

2026년 2월

의뢰기관 전남매거진
조사기관 (주)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일자 2026. 2. 10.~11.
조사방법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ARS(91%)
+유선 ARS(9%)

2026년 3월

의뢰기관 남도일보, 광주CBS 노컷뉴스
조사기관 (주)리얼미터
조사일자 2026. 3. 22.~23.
조사방법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ARS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성으로 검증된 1위에게 전남광주 통합교육의 미래를 주문합니다.

전남광주 자치, 민주·인권, 문화예술 시민사회 활동가 10,821명 지지 선언
광주 퇴직 교장단 314명 지지 선언
전남 퇴직 교원 1,341명 지지 선언
전남광주 23개 대학 교수 및 연구자 339명 지지 선언



“통합의 시대, 경험의 크기가 리더십의 크기입니다.”

교육·행정·정치·시민사회를 두루 경험한 김대중.
도시 교육과 농어촌 교육의 다른 현실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지역소멸의 위기 앞에서 한발 앞서 글로벌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남광주 통합교육행정을 완성하고
대한민국 교육특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감은 **김대중**

현 전라남도교육감
전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창립위원)

곡성 출생
광주동신고 졸업
전남대 철학과 졸업
목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 정명여고 교사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
전) 목포시의회의원 (5대~7대, 3선)
전) 목포시의회의장 (7대)
전) 목포YMCA 총무(사무총장)
전) 목포시청소년수련관장
전) 전라남도교육청 비서실장
전) 목포제일중 교사

김대중이 걸어왔던
교육민주화와 교육자치의 길을
전남·광주 시민사회 활동가
10,821명이 함께 갑니다.

교사 김대중은 교육민주화를 외쳤지만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되었습니다.
복직의 길이 열렸지만 어려움을 이겨내며
교육자치의 길을 택했던 민주화운동관련자입니다.

시의원 김대중은 아이들의 밥 한 끼
차별받지 않도록 무상급식의 물꼬를 텄고,
교육감 김대중은 학생교육수당을 실현하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배울 권리를 넓혔습니다.

시민 김대중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그 뜻을 기억하고 이어가기 위해
노무현재단 창립 운영위원으로 함께 했습니다.

시대
정신



참진보
참실력
참교육감

김대중

삶의 궤적만으로 진보라 할 수 없고, 화려한 언변과 수사로 민주를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의 진보는 지역소멸에 맞서는 것이며,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것이고, 수도권 중심 교육체제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 지금의 시대정신입니다. 시민사회 여러분의 지지는 제게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계속 걸어가라는 격려이자 명령입니다. 저는 언제나 아이들 곁에, 학교 현장 곁에, 그리고 전남광주교육의 미래 곁에 서겠습니다.